

의욕만 앞선 ‘스마트앵커’... 주민은 “웬 봉제공장” 반발

(도심 제조업)

서울시, 사업비 3120억원 투입
2022년까지 20개사업 조성키로

‘주민 집단반대’ 성북구사업 철회
중랑구, 부지 매매거부에 매입못해

서울시가 도심 제조업 부흥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앵커 사업이 주민 반대, 부지 매입 문제 등의 난관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앵커 사업 후보지였던 성북구는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해당 사업을 철회했으며 중랑구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앵커 사업은 ICT기반의 현대화된 작업 환경과 ‘기획-생산-유통’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협업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건립해 도심 제조업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봉제, 인쇄, 주얼리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연차별로 4~6곳을 선정해 오는

(스마트앵커 사업 개요)

구분	중랑 봉제	성동 수제화	중구 인쇄
사업조감도			
위치	상봉동 110-38, 39	성수 2가 277-34	예관동 52-10외 19필지
부지면적	1,568㎡	599㎡	1,200㎡
조성규모	지상6층, 지하4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12층, 지하5층

(자료=서울시)

2022년까지 시내에 총 20개의 스마트앵커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시설 한 곳당 160여억원씩 총 312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2017년 10월 ‘도시 제조업 지원 스마트앵커 시설 후보지 선정 자치구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성북구, 중랑구, 중구, 성동구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그러나 성북구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스마트앵커 사업을 철회했다.

당초시는 성북구 월곡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봉제 스마트앵커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이 교통난,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시와 성북구는 장위 11구역으로 대상지를 변경했다.

장위뉴타운 거주자들은 “월곡동보다 많은 인원이 입주할 예정인 주거단지에서 봉제공장이 웬 말이나”면서 “오토바이가 골목을 휘젓고 다녀 주민 불편이 커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다”며 집단 민원을 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북구에서 스마트

앵커 사업이 무산된 게 아니”라며 “시는 현재 ‘2020년 스마트앵커 조성 후보지 자치구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성북구는 공모 신청 전인 이달 중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시가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 스마트앵커 사업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면서 “도시 제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적지라는 것을 감안해 봉제, 인쇄, 주얼리 등의 제조업이 밀집된 곳

에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앵커 사업지로 확정된 곳은 중랑구(봉제), 중구(인쇄), 성동구(수제화), 구로구(기계·금속), 강북구(봉제) 등 총 5곳이다. 스마트앵커 건립과 관련해 시는 민원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에도 애를 먹고 있다. 중랑구 상봉동 사업 대상지는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 부지 수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익 사업 인증을 신청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토부에 의해 사업의 공익성이 검증되면 시는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스마트앵커 운영을 위해 민간주도 방식의 협업과 체계를 구축해 SH공사가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위탁개발 업체가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 관리 비용 증가 등에 의해 예상 수익이 미달할 위험이 크다”며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금융 위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oo.co.kr

‘승차거부 불가능’ 콜택시 나온다

서울시, 택시 4564대 확보

‘여성전용’ 택시도 선보여

서울시가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할 수 없는 자동배차 콜택시와 여성 전용택시를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송에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타고솔루션즈는 50개 택시회사로부터 4564대를 모집해 시에 면허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았다.

타고솔루션즈는 승객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 배차콜은 ‘웨이고 블루 택시’, 여성 전용 예약콜은 ‘웨이고 레이디 택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웨이고 블루 택시는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배



웨이고 블루 택시 모습.

(서울시)

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 택시 운전자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택시가 자동배차를 거부하고 임의로 승객을 유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가맹택시가 여러 개의 콜 앱을 사용, 골라 태우기를 할 경우에 대비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웨이고 레이디는 손님도 운전자도 모두 여성이며, 국내 최초로 영·유아용 카시트를 제공한다. 여성 전용 택시는 20대 규모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20년

까지 50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타고솔루션즈는 출시 후 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다. 시범 기간 택시 이용 운임과 별도로 부가서비스 요금이 시간대별로 2000~3000원 차등 적용된다.

해당 업체는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정액입금제(사납금제)를 폐지한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서비스 교육과 신규채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승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반려동물운송택시, 수요응답형택시, 화물운송 심부름 택시, 노인복지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출시해 택시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해 시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운송가맹서비스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계약심사 통해 예산 1255억 절감

전년비 125건, 759억 늘어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255억 원의 예산을 절감(증액 58억원, 감액 1313억 원)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제도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계약심사담당 관실은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480건 1조7397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 2355건 1조 6638억 원 대비 125건 759억 원이 늘

어난 것으로 2008년 계약심사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 공사는 1121건 1조1737억 원에서 1043억 원을 절감했으며, 용역은 432건 3835억 원에 152억 원, 물품구매는 927건 1825억 원에 60억 원을 절감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여주시가 추진하는 A도로공사의 사업비를 당초 32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조정했다. 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A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 기존 설계를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가 지난해 진행한 학교밖 청소년 진로박람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94억 투입

경기도, 센터인력 9명→12명 보강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과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올해 도비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그동안 이들이 느꼈던 상대적 소외감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먼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보강해, 4월까지 센터를 확대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진로 박람회를 확대하여 개최하고, 대학입시 설명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정비와 보강을 위해 11개 센터의 인력을 총 14명 증원하고, 근무인력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하여 센터 조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도는 올해 2월부터 희망 시군(23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1일 1만원 이내의 급식(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10개월 간 월 3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야외결혼 ‘무료대관’... 신혼부부 모셔요”

서울시, 공원 4곳 결혼식 신청접수

서울시는 ‘공원에서 작은 결혼식’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작은 결혼식은 월드컵공원, 시민의숲,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 등 서울의 4개 주요공원에서 진행된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하는 장소대관료가 무료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일 최대 2회 예약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예비부부의 취향을 살려 장소를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드컵공원 소풍결혼식의 경우 올해 예약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지난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재생용지 청첩장 사용, 일회용 생화 사용 제한, 하객수 150명 이내 등을 권장하고 있다.

시민의숲에서 예식을 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기획안과 신청동기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18일부터 접수 받는다.

용산가족공원 야외결혼식은 4~10월(7, 8월 제외)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가능하다. 접수는 28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친환경 결혼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축하화환 설치 금지 등을 권한다.

남산공원 전통혼례는 한옥건물 호헌당



남산공원 전통혼례 모습.

(서울시)

에서 원삼과 활옷,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백년해로를 기약하는 전통방식으로 치러진다. 전통혼례는 4~10월(7, 8월 제외)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가능하다. 접수는 28일까지 받는다. /김현정 기자